

광주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탄력

〈복합단지〉

옛 교도소 부지 활용 조건 국회 법사위 예산안 통과 구치소 대체부지 다음달까지 마련 최대 과제로

광주를 세계적인 인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Complex·복합)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구 문흥동의 광주교도소가 44년 만에 삼각동으로 이전하고, 최대 난관이었던 구치소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일단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총무(광주 북구)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건이

부대의견으로 통과했다. 예산안 부대의견은 해당 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임 의원은 측은 부대의견을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과 관련 광주시와 협의해 조속히 구치소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기존 교도소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부대의견의 조건이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11월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데다 그전까지 구치소 대체 후보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

인권·평화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고 그동안 법무부에 부지 무상양여를 원했다. 시와 법무부 협의결과 부지의 2/3는 무상양여가 거의 확정됐지만, 법무부가 1/3부지에는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지역정치권과 시, 법무부의 노력으로 구치소를 다른 곳에 건립하기로 논의하고, 법무부는 시가 제시한 대체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 작업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구치소 대체부지가 해결되면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스호스텔 등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법정체제, 모의재판 등 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 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Law Park)' 건립도 추진

하기로 했다.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은 광주를 민주주의 역사의 고장과 교육, 체험, 문화, 인권중심의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계적 인권중심과 민주평화의 상징적 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이는 등 브랜드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부지 10만6000여㎡와 인접한 부지 등 모두 19만7000여㎡에 국비와 민자 13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착공, 2022년 완공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치소 대체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후보지가 확정되면 옛 광주교도소를 활용하는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 정가

청년 사회참여 보장, 청년센터 설치

김동찬·전진숙 시의원 조례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안정화 토대가 될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사진 왼쪽)·임택·전진숙(사진 오른쪽) 의원은 최근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에게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또 청년정책 연구·추진을 전담하



는 청년센터 설치, 고용촉진·안정 등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은 담고 있다.

특히 생활안정과 관련된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채경감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동찬 의원은 "청년 삶의 안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특히 경력여건이 열악한 지역사정을 고려해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유도하는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3000명 미만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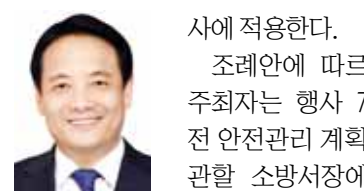
임택 시의원 조례 발의

3000명 미만이 모여는 공연 등 야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광주에서도 추진된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택 시 의원은 최근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행사참여 인원이 3000명 이상이면 공안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예방이나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생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취지다.

조례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옥외행



사에 적용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최자는 행사 7일 전 안전관리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서장은 행사 하루 전까지 주최자와 관계자를 참여시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재난예방 조치나 안전관리 조치를 면탈할 경우 시의회의 결정을 위반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노후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 지원

김옥자 시의원 조례 발의

노후·영세 아파트 단지내의 낡고 위험한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조례가 발의됐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옥자 시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준공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사원 아파트 제외)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비가 규정된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일



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되며, 상한액은 시설당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옥자 의원은 "지역에 따라 비용 일부, 많게는 100%를 지원하는 곳이 상당수 있다"며 "일부 영세아파트는 자체 예산이 없어 어린이 놀이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안타깝기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자치박람회 20주년 개막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초청 인사들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0주년'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나무 재선충병 무안서 발생

피해목 파쇄·이동제한

전남도, 방제 총력

전남도가 무안 삼합읍 왕산리 671-1번지 일원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29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목 방제,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무안군,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인근 시·군 담당자가 참여해 ▲무안군 재선충병 방제계획 ▲감염 시기와 원인 및 경로 등 역학조사 계획 ▲방제 방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는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중동대처를 위해 발생 지역 소나무에 대해 10월

말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마치고, 11월 말까지 피해목을 벌채해 전량 파쇄할 계획이다.

또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인 왕산리 외 3개동·리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지름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농가 등에서 재배 중인 조경수목 등은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제한없이 이동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도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과 감염 여부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특별예찰을 실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가뭄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기 완공

저수지 물채우기 등 대책 수립

전남도가 내년 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뭄 대비 농업용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가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중부지방에 비해 다소 양호한 상태지만 올 봄 가뭄에 이어 장마철 또한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농업용 저수지 저수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27일 현재 누적 강수량은 1055mm로 평년(1367mm)의 77%에 그치고 있다. 저수율도 47%로 평년(62%)보다 저조해 2016년 영농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016년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하는 5월 말까지 농업용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말 준공 예정인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가뭄대책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담수를 실시하고, 해빙기 이후 농경지 주변 하천과 배수로 등에 물 가두기를 실시해 사전에 농업용수를 저장할 계획이다.

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하천과 관정에서 양수해 저수지를 미리 채우기로 했다.

영광 불갑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이 36%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돼 간접유역인 장성 대도천에서 양수작업을 실시해 물을 채우고 있으며, 물이 부족한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물 채우기'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